

클린뷰티 도입...자생식물 활용 적극 확대



LG생활건강이 고객에게 더 나은 삶의 가치를

를 제공하기 위해 ‘최고의 지속가능한 F MCG(일용소비재)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클린뷰티 인사이트를 통한 화장품 출시, 사업장 일대에 풀벌 공원을 조성하고, 자생 식물을 재배하는 등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ESG 경영이 특징이다.



LG생활건강이 고객에게 더 나은 삶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ESG 경영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자생식물을 자체 재배하는 충북 청주 가든(왼쪽)과 더페이스샵 ‘더테라피 비건 라인’.



클린뷰티, 지속가능한 화장품 제곱 비동물성 원료·리필 가능 용기 사용 자체 재배한 자생식물로 제품 제조 풀벌공원 조성 등 생태계 복원 앞장



▲‘클린뷰티 인사이트’ 시스템을 적용한 비온드 ‘엔젤 아쿠아 라인’.

●클린뷰티 인사이트 도입

먼저 주력 제품인 화장품 연구개발 단계부터 ESG 경영 방침을 제품에 반영하는 ‘클린뷰티 인사이트’ 시스템을 도입했다. 클린뷰티는 파라벤 무첨가, 플라스틱 포장재 저감 등 고객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화장품을 의미한다.

클린뷰티 연구소를 통해 4R(Recycle 재활용, Reuse 재사용, Reduce 감량, Replace 대체) 관점에서 천연 유래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 개발, 탄소 발생을 줄이는 제형, 에너지 저감 공정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구환경, 인체건강, 정직한 과학, 이웃과의 상생 등 4가지 기준에 12개 세부 항목을 정량화한 클린 뷰티 지수를 개발했으며, 이를 제품에 적용했다.

비온드 ‘엔젤 아쿠아 라인’이 대표적으로, 제조 과정에서 동물성 원료를 배제하며 한국비건인증원에서 비건 인증을 받았다. 여기에 자사 연구원이 울릉도 농장에서 2만 시간 동안 정성껏 기른 전호의 생명력을 더해, 피부에는 더욱 순하고 효능은 강해진 비건 수분 진정 라인으로 거듭났다.

더페이스샵 ‘더테라피 비건 라인’은

스위스 알프스에서 유기농 농법으로 재배한 에델바이스 성분 등 비동물성 원료를 사용한 비건 스킨케어 라인이다. 크라프트팩 포장재를 사용했고, 플라스틱 사용을 절감하기 위해 재사용이 가능한 리필 용기를 적용했다.

오주영 LG생활건강 클린뷰티 연구소장은 “클린뷰티 인사이트는 제품 속에 클린뷰티를 내재화하겠다는 고객과의 약속이자, 실천의 다짐”이라며 “과학적 사실과 혁신을 기반으로 고객과 투명하게 소통하며 고객 경험을 늘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했다.

●생태계 보호와 생물 다양성 보전

자연 생태계 보호와 생물의 다양성 보전을 위한 활동도 눈에 띈다. 국내 자생 식물 활용 확대가 대표적으로, 멸종위기의 자생식물 자원의 보전 및 복원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식물자원의 새로운 가치를 발굴해 미래자산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기존 울릉도에서 야외 재배지를 운영한 데 이어, 7월 자생식물을 자체 재배하는 충북 청주 가든을 개원했다. 이곳에서 재배한 식물 성분을 화장품 제조에 활용하고 있다. 울릉도에서 재배한 식물

천초화에서 자연 건조법을 통해 개발한 궁중천초화 성분이 대표적이다. 이를 궁중 화장품 브랜드 ‘후’의 최고급 라인 ‘천율단’에 적용해 피부 보습과 브라이팅 효능을 강화한 제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또 울릉도 자생식물 섬전호 추출물을 적용해 수분 공급에 효과적인 ‘비온드 엔젤 아쿠아 라인’을 선보였다.

또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울산 온산공단 주변에 약 1만5600㎡ 규모의 풀벌 공원을 조성한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 현상과 환경오염으로 급감하는 풀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공원 내 다양한 꽃을 피우고 꿀을 생산하는 밀원식물을 500그루 이상 식재함으로써 꿀벌뿐 아니라 나비와 딱정벌레 등 다양한 곤충이 활동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해 식물의 활력 증진 및 생물다양성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박현영 LG생활건강 ESG 총괄 전무는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기능 복원 활동이 기후변화 완화 및 지역사회의 재난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산림보호와 복원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정국 기자 jjay@donga.com

통신 대안신용평가 합작법인 설립 투자 협약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최준기 KT 본부장, 장홍성 SKT 담당, 전경해 LG유플러스 담당, 한창래 KCB 부사장, 온민우 SGI 본부장(왼쪽부터). 사진제공 | 통신3사

통신 3사, 신용평가 합작법인 설립 학생·주부 등 금융약자에 혜택 제공

“ESG 활동 협력”...새로운 고객가치 창출 목표

치열한 시장 경쟁을 벌이는 통신 3사가 ESG 활동에는 힘을 모은다. 토종 애플리케이션 공동 투자, 본인 인증 서비스 ‘PASS’ 협력, ESG 경영확산을 위한 공동 펀드 조성 등에 이어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신용평가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한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SGI서울보증,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함께 전문개인신용평가에 진출하기 위한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통신 3사가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개사는 금융거래 정보가 부족한 신파일러(금융이력 부족자)를 대상으로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합작법인은 금융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는 학생, 가정주부 같은 금융약자들에게 대출한도를 늘리고 금리는 낮추는 등 금융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비금융 신용평가사업을 시작으로 데이터 사업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고, 새로운 고객가치 창출을 위한 신규사업을 발굴할 방침이다.

합작법인은 통신 3사가 각각 26%의 지분을 출자하고, SGI서울보증과 KCB는 전략적 투자자로 각 11%의 지분을 출자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현재 5개사는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한 상태다. 준비법인 설립과 CEO 공개 모집, 기업결합심사 후 사업권 신청 등 필요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통신 3사가 힘을 합쳐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최초의 사례인 만큼, 업계 대표주자인 SGI서울보증, KCB와 함께 ESG가치 실현, 새로운 고객가치 창출을 목표로 합작법인의 성공적인 설립과 사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롯데마트, 최고급 한우 브랜드 ‘마블나인’ 론칭

투플러스 등급 중에서도 최고 수준

롯데마트가 4일 최고급 한우 브랜드 ‘마블나인(Marble 9)’을 론칭했다.

투플러스(1++) 등급 중에서도 근내지 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 등이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아 부여되는 BMS

9등급만을 엄선했다. 그동안 고급 레스토랑에서만 즐길 수 있었던 최고 등급의 프리미엄 한우를 대형마트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됐다.

마블나인에는 롯데마트가 쌓아온 한우 직경매 노하우와 역량이 담겨있다. 2019년부터 한우 직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매매참가인 자격을 얻은 전문 축산MD(상품기획자)가 산지 공판장에서 직접 한우를 공수한다.

론칭 기념으로 17일까지 오프온트 회원을 대상으로 4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또 제타플러스 등 22개점에서 ‘마블나인X우월 홈마케’ (사진)를 한정 판매한다.

편지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전기세가 확실하게 절감되는

센추리 초강력 인버터 냉·난방기



사업자등록증 OK
36개월 분납가능

45년 전통의 업소용 전문업체

(상가, 사무실, 공장, 식당, 교회 등)



냉난방기 구입시 꼭 확인하세요!! 전기세가 얼마나 절감되는지? / 냉방·난방 평수가 똑같은지? / 45년동안 고집스럽게 냉난방기를 만든회사인지?? 초기비용없이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36개월 분할납부가 되는지? / 빠른 설치와 A/S가 되는지??

센추리 공식 판매처 (주) 센추리에어컨

제품구입 무료전화

080-965-7777